

# 민주 광주시장 TV토론 姜-李 '공방'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을 이틀 앞둔 16일, 예비후보 3자 TV토론회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기정, 이용섭, 양향자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을 이틀 앞둔 16일 열린 예비후보 3자 TV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에 대한 세 후보 간 뜨거운 정책공방이 이어졌다.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근무 경력' 등을 두고는 강기정 후보와 이 후보 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고, 양향자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오전 9시45분부터 90분 동안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는 전체 토론시간의 3분의 2 가량이 경제 문제와 시정 현안에 집중됐다.

강기정 후보는 이용섭 후보를 향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10대 경제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실망스럽고, 국민 일자리 만드라고 임명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분인 일자리를 위해 9개월 만에 그만두고 광주시장에 도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향자 후보도 협공했다. 양 후보

는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기구가 일자리위원회인데, 몇 개월 근무했느냐"고 물은 뒤 "수개월 만에 일을 충분히 완수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짰 장본인이 이용섭이고 그 성과를 올 하반기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광주시장에 3번째 도전하지만 단 한 번도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광주시장은 강한 소명 아래 현신하는 자리"라고 받아쳤다.

도시철도 2호선, 대중교통과 관련해선도 신경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출근시간 교통 흐름이 시간당 19km에 불과한데 40%가 넘는 자가용 수송 분담률을 조정하고 버스노선 공급량 조정, 전용차로 확대, 지능형 교통체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철 2호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강 후보와 단일화한 두

## 청년일자리, 도시철도2호선 등 해법 입장차 '전두환 靑 사정비서관실' 근무 놓고는 설전 姜-李, 양향자 정책 "좋다" 결선 겨안기 해석

후보는 2호선에 부정적이었는데, 의견은 조정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미래형 교통위원회를 꾸려 단일화 3인이 치열하게 토론할 계획에 있다. 차공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선 현 운영현 시장이 점검하고 시민공동정부가 들어서면 그 논의된 내용에 따라 차차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광주에 살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상습 정제구간 3곳만 얘기해 달라"고 돌발질문을 던졌다.

양 후보는 "기차차 광주공장을 이전한 뒤 그 자리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518m 빛의 타워를 건립해 도철2호선,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그랜드 랜드마크 조성"과 기업 유치, 산업재편을 통해 반드시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 후보와 이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률 목표치, 이 후보와 양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실행계획과 일자리 쇼크, 강 후보와 양 후보는 기차차 광주공장 이전을 둘러싸고 가벼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강 후보와 이 후보는 이 후보의 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근무경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1985년 민주화운동으로 3년7개월간 옥고를 시작할 때, 이 후보는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비서관실 총괄책임자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해 고발된 장본인으로 추후 망월역에 와서 사회까

지 했다"며 "이 후보가 당시 청와대에 발령난 건 누군가 이끌어줘서 틀어막아 주지 않았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차관급 이상 8번 했지만 단 한 번도 로비한 적 없고 청와대 근무도 능력을 검증받아 간 것이며, 5월 단체도 문제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로비설과 '전두환 부역설'은 모두 틀린 얘기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장 후보답게 폭력을 지켜 달라"고도 말했다.

양 후보는 양비론을 폈다. 그는 "이 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사건, 청와대 근무경력에 대한 5월 단체의 검증은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투명한 검증을 거쳐 인선하는데 졸타고 간다는 건 낡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과거로 싸우는 느낌에 체기가 든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 후보와 이 후보는 결선투표를 의식해선지 양 후보의 박테이터 교통대책 공약과 그랜드 디자인 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이라며 치켜세워 우군화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은 18~20일, 결선투표는 23~24일 이뤄진다. 권리당원 ARS투표 50%와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진행되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 "순천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조중훈 예비후보 2020 착공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조중훈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실에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인간과 동물이 함께 쉬고 즐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순천에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중훈 예비후보는 "전국의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 다 개최하고 있는 순천시의 경우 반려동물 애호가 2만 명에 달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 동부 반려동물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2020년부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 예비후보는 전남도와 협의해 1백여 억을 투입해 순천시 용례산 기적의 숲 4백만 평의 부지 내에 2만여 평 규모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쉬 수 있는 쉼터와 20실 규모의 숙박 시설, 80면으로 이뤄진 캠프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등을 설

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유기견을 상시 보호할 수 있고 유기견을 분양할 '유기견 보호동' 및 청소년 인성교육 및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진행할 '반려문화센터'도 구상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플랜이다"며 "순천시를 비롯해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만남과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이 연 1조~1조 2000억원 수준의 규모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여서 매년 9월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는 순천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지자들의 세를 모아 경선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세월호 4주기 추모기간임을 고려해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을 일체 받지 않고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럼에도 연인원 3000여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그 열기는 자못 뜨거웠다.

개소식의 첫 순서는 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지지선언이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순천지역본부 박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법인택시 4개 노조 367명과 택시 허사모 김원빈 회장을 비롯한 개인택시사업자 220명 등 587명은 "순천시장은 노동자와 함께 온 허석 예비후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등 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고석규 교육감 후보,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 임종기, 오하근, 정영근 등 도의원 예비후보, 허



유인, 이육기, 김병준, 김미연, 나안수 시의원 예비후보 등 이번 6.13 지방선거 임지가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석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전남, 안전한 순천을 생각한다"며 "순천의 안전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최근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상대를 따돌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등 공천을 자신한다"며 "마지막 한 표까지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순천시장이 됩니다. 그래야 순천이 바뀝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허석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통으로, "이제는 비평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접촉을 늘여가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 장만채 "김영록, ARS전화로 일반인에 지지호소 선거법 위반" 고발

**지적박탈 등 엄정한 조치 요구**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는 당 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며 "김 후보는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 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전화 녹음 내용 자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김영록 후보의 지적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 김영록 후보의 지적 박탈을 요구했다.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